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

2022  
12

[ 통권 9호 ]

# 건설기술인 동향 브리핑

Briefing on Construction  
Engineer Trends



[www.cepik.re.kr](http://www.cepik.re.kr)

주소  
06098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8층(논현동, 건설기술인회관)  
TEL 02-6204-4332

본 자료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팀  
(유동영 연구원, [dyyoo@cepik.re.kr](mailto:dyyoo@cepik.re.kr),  
02-6304-4339)로 연락바랍니다.

**01** 건설기술인 동향 브리핑 분석 개요

**02** 건설기술인 관련 이슈 분석

**03** 건설기술인 자격·등급 현황

**04** 건설기술인 인구학적 특성

**05** 건설기술인 고용현황 및 특성

**06** 건설기술인 채용공고 현황

**07** [특집] 건설기술인 근로실태조사

### 》》 건설기술인 관련 이슈 분석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확대
- 상반기 건설워크넷을 통해 취업한 건설기술인 936명
- 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포상금 지급
-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문제 개선

### 》》 건설기술인 자격·등급 현황

- 건설기술인 922,792명,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
- 초급건설기술인 47.9만명, 전체 기술인의 51.9% 차지
- 건설기술인 68.5%가 자격보유,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

### 》》 건설기술인 인구학적 특성

- 청년층 건설기술인 시장 이탈 및 건설기술인 고령화 현상 심화
- 여성 건설기술인 14.3%(13.2만명),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

### 》》 건설기술인 고용현황 및 특성

- 재직 건설기술인 66.7만명,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
- 건설기술인 대부분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 재직 중
- 장기 미취업자 25.8만명,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
- 30·40대 주력 연령대 고용 감소 추세 지속

### 》》 건설기술인 채용공고 현황

- 전년 동월 대비 33.6% 증가한 건설기술인 34,504명 채용공고
- 기술사·건축사 자격 채용 증가 및 산업기사·기능사 채용 감소
- 월평균 임금 357.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만원 증가

### 》》 [특집] 건설기술인 근로실태조사

- 건설기술인의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항목 제공이 부족한 실정
- 20~40대 조직몰입도에 대한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높아 건설기술인 이탈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실제 근로시간 단축업체는 24.2%에 불과
- 복리후생, 근로시간 및 적정대가 등 근로환경에 대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정책 필요

# 01 건설기술인 동향 브리핑 개요

## 1. 목적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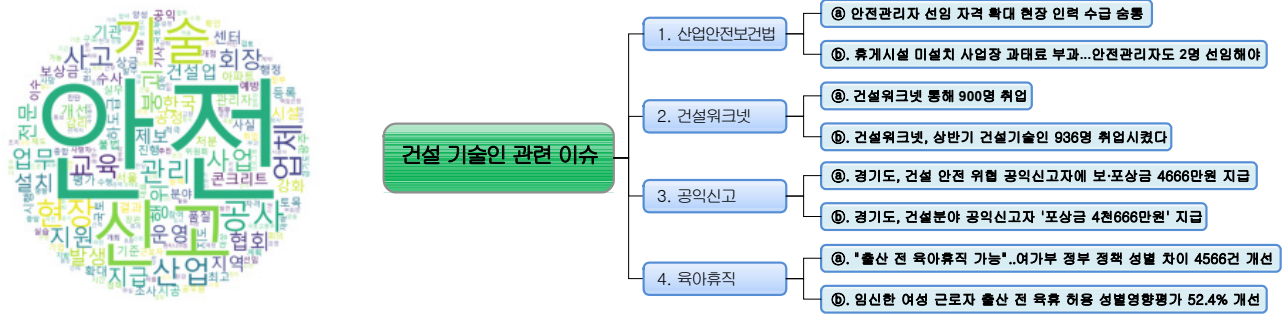
- 본 건설기술인 동향 브리핑은 건설기술인력의 다양한 특성(인적 특성, 고용 특성, 근로 실태 등)의 변화를 파악하여 건설기술인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건설기술인 현황 진단과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함.
- 본 보고서는 매년 2회(3월/9월) 발간되며, 이번 조사는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인 특성 변화를 분석함.

## 2. 데이터 출처 및 분석기준

- 본 조사에 활용된 데이터는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고용노동부 워크넷, 3. 설문조사, 4. 각종 언론 기사로부터 확보함.
- [건설기술인 관련 이슈]는 건설기술인을 주제로 2022.3.1.부터 2022.8.31.까지 인터넷에 공개된 기사를 웹 스크래핑(Web Scraping) 기법으로 수집하여 분석함.
- [건설기술인 현황, 인적특성, 고용현황 등]에 관한 분석은 2022.6.30.을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건설기술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공통 분류기준은 아래와 같음.
  - 직무분야 등급 분류기준은 경력신고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기입한 직무분야의 ICEC기반 역량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 자격 분류기준은 건설기술인이 보유한 최고자격(즉, 기술사 > 건축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지원자격 > 기능사 > 기능사보 > 인정기능사 > 학력경력자 > 경력자) 순으로 분류
  - 건설기술인이 속한 기업이 복수업종 보유 시(종합건설 > 전문건설 > 주택건설 > 건축사사무소 > 감리전문회사 > 엔지니어링 > 측량업 > 기술사사무소 > 안전진단전문기관 > 품질검사전문기관 > 기타건설업 > 기타) 순으로 분류
  - 연령별 분석의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에 외국인 등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없는 인원이 포함되어 이를 제외하고 분석함.
  - 본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건설기술인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등록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협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설기술인현황'에 수록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
- [채용공고 분석]은 2022년 상반기(22.1.1.~6.30.) 동안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등록된 21,404건의 채용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함.
  -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통계자료가 건설노동시장 전체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특집] 건설기술인 근로실태 분석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함.

## 02 건설기술인 관련 이슈 분석

〈그림 1〉 건설기술인 관련 이슈



\* "건설기술인" 키워드로 조회되는 2022년 상반기('22.3.1. ~ '22.8.31.) 뉴스 기사 분석

### 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건축·토목 등 일반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도 일정 시간의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기존 1명에서 2명 선임하도록 개정

### 2. (건설워크넷) 상반기 건설기술인 상반기에만 936명 취업

- 건설워크넷으로 매칭된 취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일반건설업이 3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건설업 129명, 기타건설관련 78명, 건축사사무소 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가 369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60대 340명, 40대 150명, 30대 33명, 70대 이상 30명, 20대 14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협회가 퇴직자 및 고령자 대상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3. (공익신고) 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원 지급

- 도는 지난 6월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1건 2,537만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원 등 총 6,26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중 건설분야에만 총 4,666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됨.
- 단일 신고 건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종합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로, 170억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하였음.

### 4. (육아휴직) 임신한 여성 근로자 출산 전 육휴 허용 등 정부 정책 중 52.4% 개선

- 16일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법령·사업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52.4%(4,566건)의 개선을 완료하였음.
- 이 중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개선하였음.



# 03 건설기술인 자격·등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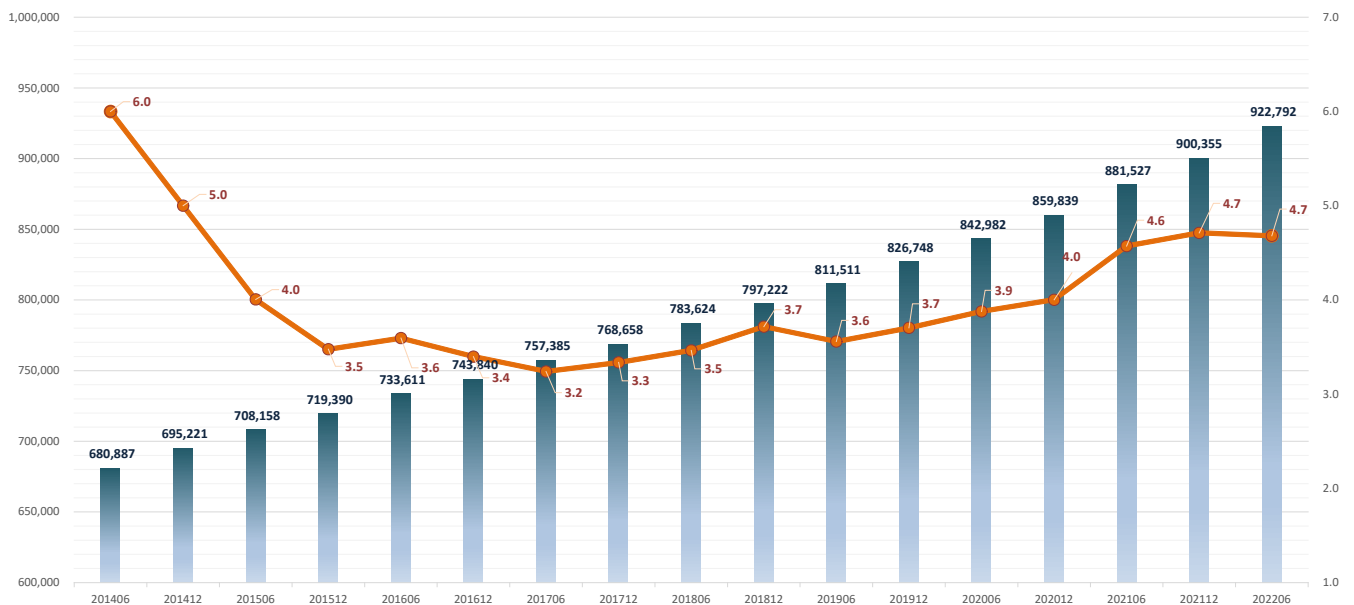
## 1. 전체 건설기술인 인원수: 건설기술인 922,792명,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

- 2022년 6월 전체 건설기술인의 인원수는 922,79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265명(4.7% ↑) 증가하였으며, 증가율 또한 2020년 12월 이후 4분기 연속으로 4%대를 기록하여 증가하는 추세

\*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5.0%(2014.12) → 3.5%(2015.12) → 3.4%(2016.12) → 3.3%(2017.12) → 3.7%(2018.12) → 3.7%(2019.12) → 4.0%(2020.12) → 4.7%(2021.12) → 4.7%(2022.06)

〈그림 2〉 건설기술인 총량 추이

(단위: 명, %)



\* 주황 실선(—)은 건설기술인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자료(2022.6.30. 기준)

## 2. 등급별 현황: 초급건설기술인 47.9만명(51.9%), 전체 기술인의 절반 이상 차지

- 등급보유 건설기술인은 871,492명(94.4%)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290명(4.5% ↑) 증가하였으며, 무등급자는 51,300명(5.6%)을 차지함.
- 특급건설기술인은 189,666명(20.6%)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79명(3.6% ↑) 증가해 등급 중 증가율이 가장 낮았으며, 증가율은 안전관리(13.0%) → 환경(6.5%) → 조경(4.8%) → 전기·전자(4.3%) 순으로 나타남.
- 고급건설기술인은 98,757명(10.2%)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26명(3.7% ↑)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기계(7.7%) → 도시·교통(6.9%) → 조경(6.1%) → 안전관리(5.9%) 순으로 나타남.
- 중급건설기술인은 104,552명(10.1%)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41명(8.8% ↑) 증가해 등급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분야별 비중은 기계(14.1%) → 건축(10.6%) → 조경(9.7%) → 안전관리(9.1%) 순으로 나타남.
- 초급건설기술인은 478,517명(51.9%)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744명(4.1% ↑) 증가해 전체 기술인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며, 증가율은 안전관리(9.9%) → 건설지원(7.8%) → 전기·전자(5.8%) → 건축(5.1%) 순으로 나타남.

### 3. 자격별 현황: 건설기술인 68.5%가 자격보유,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

- 기술자격보유자는 631,812명(68.5%), 자격 미보유자는 290,980명(31.5%)으로, 자격보유자 비중은 전년 동월 대비 약 2.1% 증가함.
-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전년 동월 대비 약 2.7% 증가한 31,929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인의 4.7%에 해당하며, 대부분 토목 및 건축 직무 분야에 포진(26,786명, 83.9%)하고 있음.
-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전년 동월 대비 약 5.2% 증가한 3,342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인의 0.5%에 해당하며, 대부분 건축 직무 분야에 포진(3,332명, 99.5%)하고 있음.
- 기사 자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전년 동월 대비 약 4.7% 증가한 294,098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인의 43.2%에 해당하며, 대부분 토목 및 건축 직무 분야에 포진(212,136명, 72.1%)하고 있음.
- 기능장 자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7.9% 증가한 1,724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인의 0.3%에 해당하며, 절반 이상이 기계 직무 분야에 포진(1,136명, 65.9%)하고 있음.
-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1.0% 증가한 187,723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인의 27.5%에 해당하며, 대부분이 토목 및 건축 직무 분야에 포진(164,839명, 87.8%)하고 있음.
- 또한 지원 자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76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인의 0.01% 수준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 약 31.0%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토목 및 건축 직무 분야에 포진(49명, 64.4%)하고 있음.

\* 지원자격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행정사, 일반행정사, 행정사 자격을 소유하여 건설기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함

- 자격 미보유자 316,055명 중 학력 경력자가 216,198명(68.4%)으로 과반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정기능사는 전년 동월 대비 약 4.6% 증가한 반면 경력자는 약 1.6% 감소하였으며, 이는 경력자인 건설기술인이 인정기능사 제도를 활용하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 인정기능사는 기술자격은 없으나 3년 이상 공사 실무 경력을 쌓은 후 서류 및 기능심사를 통해 인정기능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함.

〈표 1〉 건설기술인 등급·자격 현황

(단위: 명, %)

분류	등급별 인원수					자격별 인원수									자격 미보유자			소계 (증감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무등급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지원 자격	기능사	기능 사보	인정 기능사	학력 경력자	경력자		
토목	86,602	38,178	39,921	177,230	-	15,845	7	72	104,529	31,648	32	80,010	1,539	1,904	105,580	765	341,931 (▲2.9)	
건축	66,470	36,725	41,425	194,167	-	10,941	3,332	255	107,607	44,955	17	84,829	1,500	1,842	82,909	600	338,787 (▲5.3)	
기계	17,355	7,963	8,443	42,066	-	1,843	1	1,136	21,262	14,049	5	13,178	217	742	23,319	75	75,827 (▲6.0)	
안전 관리	3,510	5,124	4,299	19,598	-	623	-	190	21,088	8,035	-	838	11	11	1,723	12	32,531 (▲9.5)	
도시 교통	2,924	1,299	1,078	5,096	-	842	1	-	6,722	93	1	109	1	-	2,616	12	10,397 (▲4.7)	
환경	5,420	3,604	2,730	11,953	-	962	-	18	14,995	3,124	3	802	9	1	3,780	13	23,707 (▲3.4)	
전기 전자	2,479	1,270	1,295	5,728	-	398	-	53	4,184	1,194	-	1,066	9	3	3,862	3	10,772 (▲5.4)	
광업	324	114	84	296	-	37	-	-	446	298	-	11	1	1	21	3	818 (▲0.9)	
조경	4,296	4,240	4,998	20,640	-	355	1	-	12,398	5,571	2	6,667	403	497	8,222	58	34,174 (▲4.5)	
건설 지원	286	240	279	1,743	-	83	-	-	867	262	16	213	1	1	1,105	-	2,548 (▲6.8)	
기타	-	-	-	-	51,300	-	-	-	-	-	-	-	-	-	-	-	51,300 (▲8.4)	
소계 (증감률)	189,666 (▲3.6)	98,757 (▲3.7)	104,552 (▲8.8)	478,517 (▲4.1)	51,300 (▲8.4)	31,929 (▲2.7)	3,342 (▲5.2)	1,724 (▲17.9)	294,098 (▲4.7)	109,229 (▲2.0)	76 (▲31.0)	187,723 (▲11.0)	3,691 (▲2.7)	5,002 (▲4.6)	233,137 (▲0.7)	1,541 (▼1.6)	922,792 (▲4.7)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자료(2022.6.30. 기준)

# 04 건설기술인 인구학적 특성

## 1. 청년층 건설기술인 시장 이탈과 건설기술인 고령화 현상 심화

- 건설기술인의 인구 비중은 20대 3.8%(35,080명), 30대 12.9%(118,444명), 40대 31.5%(290,413명), 50대 30.8%(284,038명), 60대 16.4%(151,247명), 70대 이상 4.6%(42,218명)로 구성되어,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477,503명, 51.8%)을 차지함.
- 20대 건설기술인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지만 30·40대 건설기술인은 각각 3.3%, 1.4% 감소하여, 청년 건설기술인의 타 산업으로의 이탈 현상이 지속됨.
- 반면 고령층 건설기술인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0대 8.7%, 60대 12.7%, 70대 이상 20.0% 증가하여 건설기술인의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함.
- 30·40대 건설기술인의 건설산업 이탈과 건설기술인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표 2〉 건설기술인 연령별 현황 및 특성

(단위: 명, %)

분류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도시·교통	환경	전기·전자	광업	조경	건설지원	기타	소계(증감률)	
20대	소계	12,862 (▲8.5)	7,251 (▲6.7)	1,294 (▲19.0)	2,026 (▲23.4)	985 (▲10.5)	1,319 (▼2.2)	313 (▲22.7)	11 (▼21.4)	1,170 (▲0.6)	72 (▼25.0)	7,777 (▲7.7)	35,080 (▲8.4)
	특급	1	-	-	-	-	-	-	-	-	-	-	1 (-)
	고급	164	69	12	9	18	22	3	-	19	-	-	316 (▲32.2)
	중급	761	340	53	77	53	106	5	-	75	-	-	1,470 (▲8.4)
	초급	11,936	6,842	1,229	1,940	914	1,191	305	11	1,076	72	-	25,516 (▲8.3)
	무급	-	-	-	-	-	-	-	-	-	-	7,777	7,777 (▲7.7)
30대	소계	46,926 (▼2.8)	33,887 (▼8.3)	6,821 (▲0.9)	5,310 (▲8.9)	2,173 (▼3.9)	4,598 (▼4.4)	1,312 (▼1.7)	24 (▲14.3)	6,098 (▼7.6)	510 (▼0.2)	10,785 (▲6.8)	118,444 (▼3.3)
	특급	1,015	1,164	115	52	110	215	30	-	140	2	-	2,843 (▼10.9)
	고급	4,318	3,731	494	347	320	707	118	1	795	14	-	10,845 (▲3.5)
	중급	5,303	3,545	728	536	195	631	136	2	728	28	-	11,832 (▲1.4)
	초급	36,290	25,447	5,484	4,375	1,548	3,045	1,028	21	4,435	466	-	82,139 (▼5.7)
	무급	-	-	-	-	-	-	-	-	-	-	10,785	10,785 (▲6.8)
40대	소계	114,279 (▲0.3)	109,483 (▼4.0)	17,926 (▼3.7)	9,586 (▼1.9)	4,069 (▲3.1)	8,282 (▲0.9)	2,448 (▲0.9)	93 (▼22.5)	11,574 (▲2.6)	709 (▲16.6)	11,964 (▲3.4)	290,413 (▼1.4)
	특급	10,786	14,029	911	736	1,128	1,620	192	3	1,061	7	-	30,473 (▲1.0)
	고급	12,364	14,015	1,271	1,336	475	1,076	183	9	1,523	28	-	32,280 (▼9.6)
	중급	15,874	15,851	2,008	1,499	551	1,054	289	7	2,065	50	-	39,248 (▲1.2)
	초급	75,255	65,588	13,736	6,015	1,915	4,532	1,784	74	6,925	624	-	176,448 (▼1.0)
	무급	-	-	-	-	-	-	-	-	-	-	11,964	11,964 (▲3.4)
50대	소계	101,181 (▲9.6)	111,333 (▲7.6)	25,788 (▲6.9)	10,980 (▲15.4)	2,322 (▲12.7)	6,500 (▲9.2)	3,482 (▲3.7)	137 (▲20.2)	9,272 (▲9.4)	736 (▲1.4)	12,307 (▲10.0)	284,038 (▲8.7)
	특급	23,814	29,334	4,706	1,541	1,029	1,981	649	17	1,432	128	-	64,631 (▼1.1)
	고급	15,014	14,940	3,484	2,671	422	1,332	529	16	1,336	126	-	39,870 (▲11.3)
	중급	13,682	13,756	3,516	1,656	246	748	575	18	1,459	141	-	35,797 (▲14.0)
	초급	48,671	53,303	14,082	5,112	625	2,439	1,729	86	5,045	341	-	131,433 (▲11.8)
	무급	-	-	-	-	-	-	-	-	-	-	12,307	12,307 (▲10.0)
60대 이상	소계	50,392 (▲13.5)	60,293 (▲11.4)	19,056 (▲12.1)	3,926 (▲16.7)	667 (▲6.4)	2,445 (▲15.3)	2,404 (▲10.3)	191 (▼7.3)	4,810 (▲16.2)	407 (▲17.3)	6,656 (▲16.0)	151,247 (▲12.7)
	특급	22,597	28,914	8,293	944	510	1,270	1,133	80	1,201	109	-	65,051 (▲5.8)
	고급	4,257	4,536	2,332	666	55	414	363	44	469	59	-	13,195 (▲18.3)
	중급	4,946	5,362	1,919	470	30	159	240	28	560	53	-	13,767 (▲25.0)
	초급	18,592	21,481	6,512	1,846	72	602	668	39	2,580	186	-	52,578 (▲17.2)
	무급	-	-	-	-	-	-	-	-	-	-	6,656	6,656 (▲16.0)
70대 이상	소계	12,798 (▲20.7)	19,008 (▲18.0)	4,887 (▲24.3)	685 (▲30.2)	171 (▲32.6)	551 (▲17.5)	782 (▲23.1)	362 (▲7.7)	1,240 (▲21.7)	108 (▲17.4)	1,626 (▲23.3)	42,218 (▲20.0)
	특급	8,153	12,868	3,306	235	141	332	472	224	460	40	-	26,231 (▲17.0)
	고급	588	832	366	94	9	52	72	44	98	13	-	2,168 (▲23.1)
	중급	840	1,034	216	58	3	29	49	29	110	7	-	2,375 (▲29.6)
	초급	3,217	4,274	999	298	18	138	189	65	572	48	-	9,818 (▲25.3)
	무급	-	-	-	-	-	-	-	-	-	-	1,626	1,626 (▲23.3)

\* 연령별 현황은 외국인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1,138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자료(2022.6.30. 기준)

## 2. 여성 건설기술인은 전체 건설기술인의 14.3%(13.2만명)로,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

- 건설기술인은 남성 790,886명(85.7%), 여성 126,753명(14.3%)으로 구성되며, 여성 건설기술인은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하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여성기술인 비중: 12.9%(2018.12) → 13.0%(2019.06) → 13.3%(2019.12) → 13.5%(2020.06) → 13.7%(2020.12) → 13.9%(2021.06) → 14.1%(2021.12) → 14.3%(2022.06)

- 초급 여성 건설기술인의 비중은 71.3%로 남성(48.6%)에 비해 절대적 수는 적으나 건설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비율이 높으며, 중급 여성 건설기술인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14.1%로 가장 높아 건설시장에 유입된 인력이 이탈하지 않고 경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기사 자격을 보유한 여성 건설기술인은 30.5%(40,176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기능사 분야로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29,873명)함.

〈표 3〉 건설기술인 성별 현황 및 특성

(단위: 명, 전년동월대비 %)

분류	남성																	
	등급별 인원수					자격별 인원수								자격 미보유자			소계 (증감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무등급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지원자격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 기능사	학력 경력자	경력자		
토목	85,697	36,663	36,550	153,784	-	15,743	5	71	97,814	29,217	32	71,887	1,349	1,810	94,033	733	312,694 (▲2.5)	
건축	64,693	31,570	33,189	141,180	-	10,673	2,990	251	87,178	36,259	17	65,557	1,455	1,780	63,885	587	270,632 (▲4.6)	
기계	17,307	7,890	8,323	40,674	-	1,836	1	1,129	20,883	13,774	5	12,809	217	737	22,728	75	74,194 (▲5.8)	
안전관리	3,486	5,035	4,077	17,791	-	610	-	189	19,740	7,503	-	794	11	11	1,519	12	30,389 (▲9.2)	
도시교통	2,629	996	816	3,544	-	768	1	-	5,009	76	1	99	1	-	2,020	10	7,985 (▲3.8)	
환경	4,758	2,820	2,027	7,767	-	851	-	17	10,740	2,215	3	707	5	1	2,820	13	17,372 (▲3.1)	
전기전자	2,466	1,255	1,277	5,476	-	396	-	53	4,060	1,166	-	1,055	9	3	3,730	2	10,474 (▲5.2)	
광업	324	114	84	289	-	37	-	-	440	298	-	11	1	1	21	2	811 (▲0.9)	
조경	3,672	2,910	3,174	12,531	-	252	1	-	7,366	3,676	2	4,764	334	384	5,454	54	22,287 (▲4.6)	
건설지원	280	224	248	1,379	-	82	-	-	692	198	12	167	-	1	979	-	2,131 (▲5.7)	
기타	-	-	-	-	41,917	-	-	-	-	-	-	-	-	-	-	-	41,917 (▲7.2)	
소계 (증감률)	185,312 (▲3.5)	89,477 (▲3.3)	89,765 (▲8.0)	384,415 (▲3.5)	41,917 (▲7.2)	31,248 (▲2.6)	2,998 (▲4.8)	1,710 (▲17.9)	253,922 (▲4.4)	94,382 (▲1.8)	72 (▲30.9)	157,850 (▲9.5)	3,382 (▲2.6)	4,728 (▲4.3)	197,189 (▲0.6)	1,488 (▼1.7)	790,886 (▲4.2)	
분류	여성																	
	등급별 인원수					자격별 인원수								자격 미보유자			소계 (증감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무등급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지원자격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 기능사	학력 경력자	경력자		
토목	905	1,515	3,371	23,446	-	102	2	1	6,715	2,431	-	8,123	190	94	11,547	32	29,237 (▲7.2)	
건축	1,777	5,155	8,236	52,987	-	268	342	4	20,429	8,696	-	19,272	45	62	19,024	13	68,155 (▲8.1)	
기계	48	73	120	1,392	-	7	-	7	379	275	-	369	-	5	591	-	1,633 (▲12.5)	
안전관리	24	89	222	1,807	-	13	-	1	1,348	532	-	44	-	-	204	-	2,142 (▲13.7)	
도시교통	295	303	262	1,552	-	74	-	-	1,713	17	-	10	-	-	596	2	2,412 (▲3.1)	
환경	662	784	703	4,186	-	111	-	1	4,255	909	-	95	4	-	960	-	6,335 (▲4.2)	
전기전자	13	15	18	252	-	2	-	-	124	28	-	11	-	-	132	1	298 (▲11.2)	
광업	-	-	-	7	-	-	-	-	6	-	-	-	-	-	-	1	7 (-)	
조경	624	1,330	1,824	8,109	-	103	-	-	5,032	1,895	-	1,903	69	113	2,768	4	11,887 (▲4.5)	
건설지원	6	16	31	364	-	1	-	-	175	64	4	46	1	-	126	-	417 (▲12.7)	
기타	-	-	-	-	9,383	-	-	-	-	-	-	-	-	-	-	-	9,383 (▲12.5)	
소계 (증감률)	4,354 (▲9.8)	9,280 (▲8.0)	14,787 (▲14.1)	94,102 (▲6.3)	9,383 (▲12.5)	681 (▲6.6)	344 (▲8.9)	14 (▲16.7)	40,176 (▲6.8)	14,847 (▲3.2)	4 (▲33.3)	29,873 (▲19.6)	309 (▲4.4)	274 (▲9.2)	35,948 (▲1.4)	(-)	131,906 (▲7.8)	

\* 성별 소계는 등급별 인원수 또는 자격별 인원수의 합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자료(2022.6.30. 기준)

# 05 건설기술인 고용현황 및 특성

## 1. 재직 건설기술인은 66.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

- 건설기술인 재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31,532명(5.0% ↑) 증가하여 전체 건설기술인 중 약 72.3%(666,867명)의 비중을 차지함.
- 건설기술인 재직자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86.7%(578,180명), 여성 13.3%(81,183명)로 여성 건설기술인은 전년 동월 대비 9.2% 증가하여 남성 건설기술인의 증가율(4.3% ↑)보다 큼.
- 건설기술인 재직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대부분의 연령대가 전년 동월 대비 건설기술인 재직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30대·40대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9%, 1.2% 감소하여 주력 연령대 건설기술인의 산업 이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40·50대 건설기술인의 비중은 61.5%로 여전히 높으나, 60·70대 이상 건설기술인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각각 13.2%, 20.9%로 매우 높아 건설기술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건설기술인 재직자는 학력별로 구분하면 모든 구간에서 재직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기타 학력의 경우 전년 대비 10.7%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임.

〈표 4〉 재직 건설기술인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2021년 6월		2022년 6월		증감(B-A)	증감률
		취업자(A)	비중	취업자(B)	비중		
성별	남성	554,152	87.2	578,180	86.7	24,028	(▲4.3)
	여성	81,183	12.8	88,687	13.3	7,504	(▲9.2)
연령	20대	25,788	4.1	28,303	4.2	2,515	(▲9.8)
	30대	89,111	14.0	87,430	13.1	-1,681	(▼1.9)
	40대	198,674	31.3	196,321	29.4	-2,353	(▼1.2)
	50대	198,573	31.3	213,756	32.1	15,183	(▲7.6)
	60대	99,655	15.7	112,803	16.9	13,148	(▲13.2)
	70대 이상	22,423	3.5	27,116	4.1	4,693	(▲20.9)
학력	석사 이상	40,501	6.4	42,059	6.3	1,558	(▲3.8)
	학사	404,151	63.6	418,873	62.8	14,722	(▲3.6)
	고졸	59,781	9.4	61,040	9.2	1,259	(▲2.1)
	기타	130,902	20.6	144,895	21.7	13,993	(▲10.7)
소계		635,335	100.0	666,867	100.0	31,532	(▲5.0)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신고 된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자료 분석(2021.12.31. 자료추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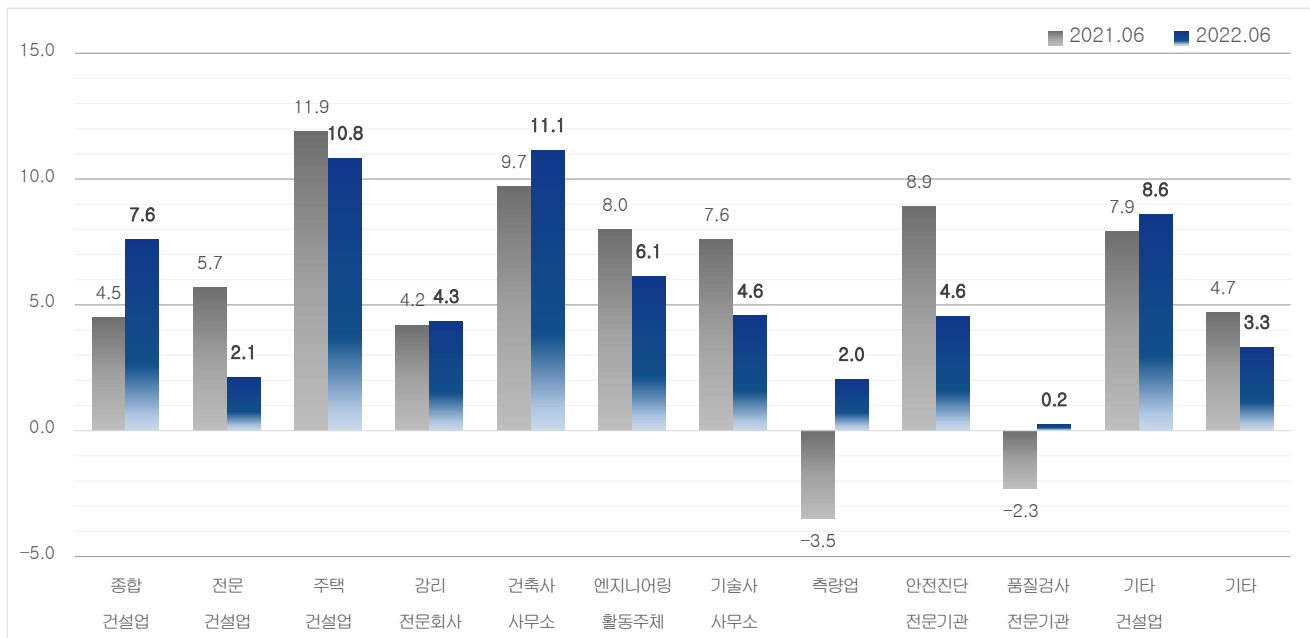
\*\* 1) 학력 기타는 학력이 없거나 고졸 이하

## 2. 건설기술인 대부분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 재직 중

- 건설기술인 재직자의 대부분이 종합건설업(266,490명, 40.0%)과 전문건설업(241,281명, 36.2%)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동월 대비 건설기술인 재직자 수 증가율은 건축사사무소(11.1%) → 주택건설업(10.8%) → 기타건설업(8.6%) → 종합건설업(7.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건설업 재직자 수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1%의 증가율을 보임.
- 측량업 및 품질검사전문기관 업태는 2021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음(-)의 값을 나타냈으나, 2022년 6월 기준 각각 2.0%, 0.2%로 증가세로 전환됨.

〈그림 3〉 업체별 재직 건설기술인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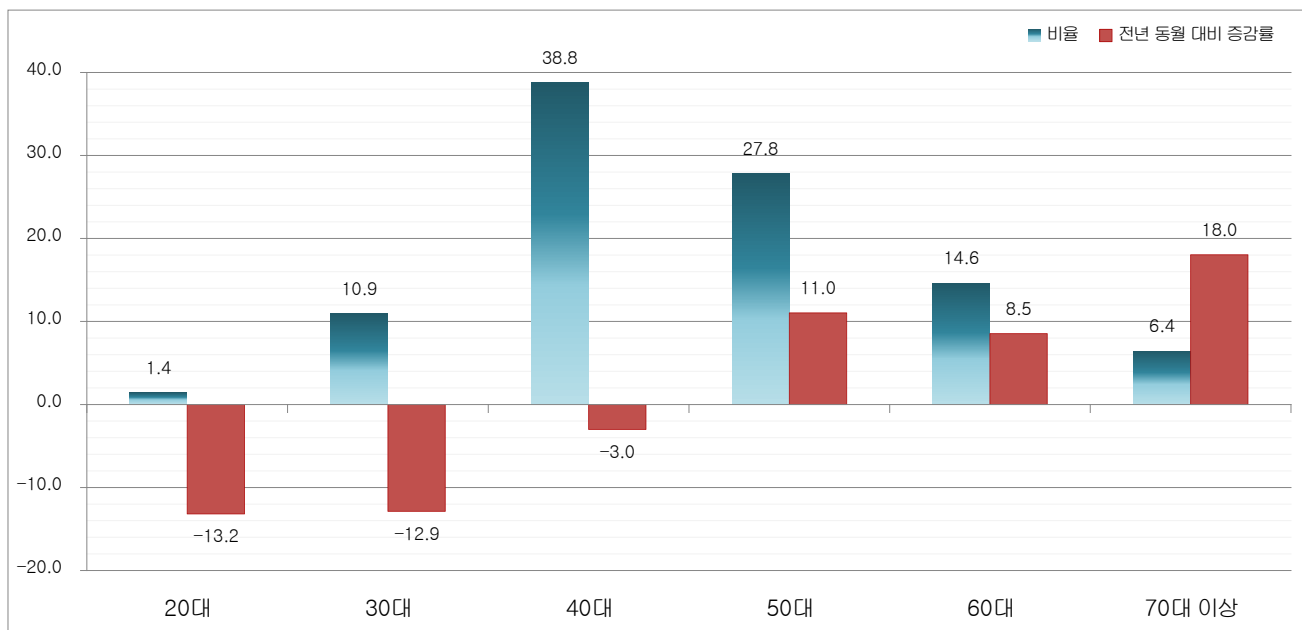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자료(2022.6.30. 기준)

### 3. 장기 미취업자 25.8만명,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

- 미취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기, 1년 이상인 경우 장기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장·단기 미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한 25.8만명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건설기술인의 약 27.8%가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장기 미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005명(1.9% ↑) 늘어난 213,960명으로, 40·50대의 비중이 절반 이상(142,454명, 66.6%)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또한 각각 11.0%, 8.5%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그림 4〉 연령별 장기미취업자 비율 및 증감률

(단위: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자료(2022.6.30. 기준)



#### 4. 30·40대 주력 연령대 고용 감소 추세 지속

- 건설기술인 중 고령층 재직자는 60대 112,803명, 70대 이상 27,116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인 중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또한 각각 13.2%, 20.9%로 높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그 증가세 또한 늘어나는 추세
- 건설기술인의 고용률은 20대(80.7%) → 50대(75.3%) → 60대(74.6%) → 30대(73.8%) → 40대(67.6%) → 70대(64.2%)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50대의 경우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30·40대 건설기술인의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p, 0.1%p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취업자 수는 각각 1.9%,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력 연령대층의 고용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표 5〉 건설기술인 고용률 현황

(단위: 명, %, %p)

분류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도시교통	환경	전기·전자	광업	조경	건설지원	기타	소계(증감률)
20대	재직	10,686	5,911	1,095	1,677	816	1,075	271	6	875	56	28,303 (▲9.8)
	미취업	단기	1,348	745	130	254	91	106	20	1	146	3,819 (▲20.4)
	장기	828	595	69	95	78	138	22	4	149	10	2,958 (▼13.2)
	고용률	83.1%	81.5%	84.6%	82.8%	82.8%	81.5%	86.6%	54.5%	74.8%	77.8%	80.7% (▲1.0)
30대	재직	35,732	24,451	5,636	4,039	1,327	3,299	1,081	14	3,843	408	87,430 (▼1.9)
	미취업	단기	2,979	1,806	425	491	132	224	72	4	306	7,602 (▲15.8)
	장기	8,215	7,630	760	780	714	1,075	159	6	1,949	55	23,412 (▼12.9)
	고용률	76.1%	72.2%	82.6%	76.1%	61.1%	71.7%	82.4%	58.3%	63.0%	80.0%	73.8% (▲1.1)
40대	재직	78,122	73,422	11,996	6,743	2,568	5,509	1,668	37	7,584	509	196,321 (▼1.2)
	미취업	단기	4,266	3,518	679	545	120	273	119	10	386	11,147 (▲8.0)
	장기	31,891	32,543	5,251	2,298	1,381	2,500	661	46	3,604	117	82,945 (▼3.0)
	고용률	68.4%	67.1%	66.9%	70.3%	63.1%	66.5%	68.1%	39.8%	65.5%	71.8%	67.6% (▲0.1)
50대	재직	77,949	85,305	18,054	7,734	1,613	4,361	2,441	65	6,877	580	213,756 (▲7.6)
	미취업	단기	3,863	3,716	921	497	49	164	98	11	354	10,773 (▲17.2)
	장기	19,369	22,312	6,813	2,749	660	1,975	943	61	2,041	116	59,509 (▲11.0)
	고용률	77.0%	76.6%	70.0%	70.4%	69.5%	67.1%	70.1%	47.4%	74.2%	78.8%	75.3% (▼0.7)
60대	재직	38,911	45,436	13,406	2,608	531	1,661	1,537	98	3,634	295	112,803 (▲13.2)
	미취업	단기	2,367	2,523	975	255	23	84	79	7	220	7,108 (▲24.2)
	장기	9,114	12,334	4,675	1,063	113	700	788	86	956	87	31,336 (▲8.5)
	고용률	77.2%	75.4%	70.4%	66.4%	79.6%	67.9%	63.9%	51.3%	75.6%	72.5%	70.4% (▲0.4)
70대 이상	재직	8,618	12,184	2,928	378	130	343	427	157	802	73	27,116 (▲20.9)
	미취업	단기	446	548	128	27	3	10	18	3	34	1,301 (▲23.2)
	장기	3,734	6,275	1,831	280	38	198	337	202	404	32	13,800 (▲18.0)
	고용률	67.3%	64.1%	59.9%	55.2%	76.0%	62.3%	54.6%	43.4%	64.7%	67.6%	64.2% (▲0.5)
소계	재직	250,018	246,709	53,115	23,179	6,985	16,248	7,425	377	23,615	1,921	665,729 (▲5.0)
	미취업	단기	15,269	12,856	3,258	2,069	418	861	406	1,446	204	41,750 (▲15.9)
	장기	73,151	81,689	19,399	7,265	2,984	6,586	2,910	405	9,103	417	213,960 (▲1.9)
	고용률	73.9%	72.3%	70.1%	71.3%	67.2%	68.6%	69.1%	46.1%	69.1%	75.6%	72.2% (▲0.2)

\* 1) 재직자는 소속회사가 있는 건설기술인

2) 단기 미취업은 1년 미만, 장기 미취업은 1년 이상 소속회사가 없는 경우

3) 고용률은 '재직 인원/총인원(재직+단기 미취업+장기 미취업)\*100'으로 산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자료(2022.6.30. 기준)

## 5. 재직 건설기술인 평균 나이 45.7세로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

- 건설기술인 평균 나이는 전년 동월 대비 0.5세 감소한 45.7세로 나타남.
- 건설기술인 재직자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업태는 건축사사무소로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한 52.5세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특급 건설기술인과 건축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됨.
- 건설기술인 재직자의 평균 연령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기술사사무소로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한 38.1세를 기록하였음.

〈표 6〉 재직 건설기술인 세부특성

(단위: 명, %)

분류	건설기술인 등급별 인원수					건설기술인 자격별 인원수									자격 미보유자			계	평균 나이(세)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무등급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지원자격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학력경력자	경력자	평균		증감	
일반 건설업	69,320	40,835	40,080	110,409	5,846	10,173	787	337	103,543	32,244	15	51,739	579	561	65,297	1,215	266,490	43.7	▲1.2	
전문 건설업	31,515	20,373	27,804	137,740	23,849	4,684	284	562	44,885	27,774	14	98,977	2,396	3,933	56,172	1,600	241,281	45.4	▲1.4	
주택 건설업	1,015	674	665	4,285	106	152	93	1	2,213	849	2	1,549	20	8	1,835	23	6,745	44.8	▲1.0	
감리 전문회사	11,362	1,997	1,256	4,940	852	3,752	96	18	9,951	1,412	4	932	1	-	4,182	59	20,407	45.0	▲1.1	
건축사 사무소	12,354	1,123	559	2,459	595	2,803	733	42	8,018	2,139	2	540	5	-	2,772	36	17,090	51.7	▲1.1	
엔지 니어링	11,401	4,068	2,908	10,123	1,368	2,358	30	26	13,706	2,581	4	2,509	5	5	8,506	138	29,868	43.3	▲1.5	
기술사 사무소	1,396	556	560	2,096	301	806	32	-	2,050	295	-	283	-	-	1,408	35	4,909	37.4	▲1.6	
측량업	786	298	111	412	42	48	-	-	841	296	-	169	-	-	292	3	1,649	48.6	▼0.9	
안전진단 전문기관	2,494	893	614	1,544	198	679	28	5	3,082	449	2	437	7	-	1,013	41	5,743	43.8	▲1.6	
품질검사 전문기관	1,368	781	429	607	108	585	21	1	2,035	147	-	284	-	-	215	5	3,293	44.2	▼0.3	
기타 건설업	66	64	64	222	1	2	-	-	166	68	-	68	-	-	112	1	417	45.9	▲0.4	
기타	16,324	8,427	7,064	34,135	3,025	2,098	386	251	24,037	8,832	11	14,520	527	235	17,732	346	68,975	47.0	▲0.9	
계 (증감률)	159,401 (▲3.8)	80,089 (▲3.7)	82,114 (▲9.8)	308,972 (▲4.5)	36,291 (▲6.6)	28,140 (▲2.6)	2,490 (▲4.7)	1,243 (▲17.3)	214,527 (▲5.2)	77,086 (▲2.4)	54 (▲31.7)	172,007 (▲10.5)	3,540 (▲0.7)	4,742 (▲3.4)	159,536 (▲0.8)	3,502 (▲7.2)	666,867 (▲5.0)	45.7	▼1.1	

\* 1) 업태는 건설기술인이 신고한 최종경력직의 업태로 분류

2) 업태 기타는 발주청, 건설관련단체, 비건설업체 등

3) 계 평균나이는 '업태별 평균나이\*비중(업태별 인원수/총인원 수)'의 합으로 산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자료(2022.6.30. 기준)



# 06 건설기술인 채용공고 현황

## 1. 전년 동기 대비 33.6% 증가한 건설기술인 34,504명 채용공고

- 2022년 상반기의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자료 21,404건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33.6% 증가한 34,504명을 모집 공고함.
-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전체 채용의 83.8%(28,899명), 계약직이 16.2%(5,605명)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계약직 비중이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소 요구 학력은 4년제 대학 이상 1,418명(4.1%), 전문대학 9,774명(28.3%), 고등학교 이하 4,104명(11.9%), 학력무관 19,208명(55.7%)으로 채용 시 학력을 고려하지 않는 공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월급은 400만원 초과 조건의 채용이 10,878명으로 전체 비중의 31.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비중 상승폭 또한 8.7%p로 가장 높음.
- 채용공고를 게시한 기업의 대부분은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모집인원이 전체 비중의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299인 규모 기업은 6.2%, 300인 이상 규모 기업은 전체 모집인원의 3.5% 수준으로 낮은 비중임.
- 근무지역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인 공고의 모집인원은 14,059명으로 전체 비중의 40.7%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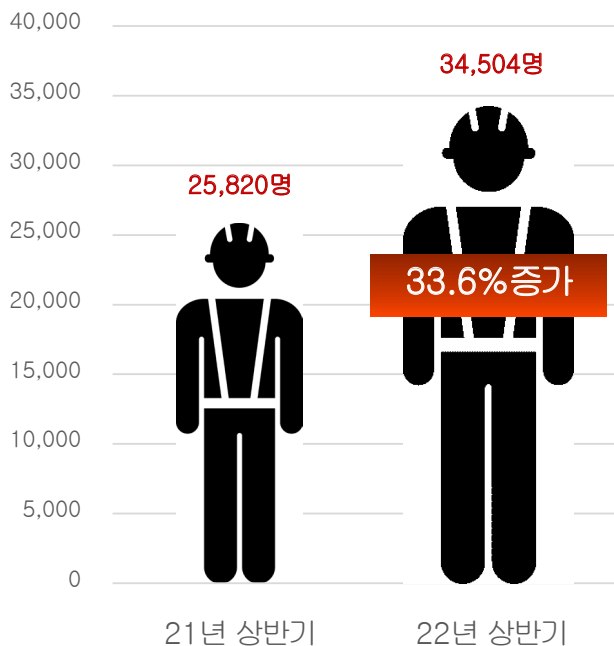
〈표 7〉 건설기술인력 채용공고 현황

(단위: 명, %, %p)

구분		'21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비중증감
		소계	비중	소계	비중	
고용 형태	정규직	21,718	84.1	28,899	83.8	(▼0.4)
	계약직	4,102	15.9	5,605	16.2	(▲0.4)
학력	대졸 이상	1,249	4.8	1,418	4.1	(▼0.7)
	전문대졸	7,647	29.6	9,774	28.3	(▼1.3)
	고졸 이하	3,497	13.5	4,104	11.9	(▼1.6)
	학력무관	13,427	52.0	19,208	55.7	(▲3.7)
경력	경력	15,863	61.4	20,246	58.7	(▼2.8)
	신입	1,343	5.2	1,810	5.2	(▲0.0)
	경력무관	8,614	33.4	12,448	36.1	(▲2.7)
월급 구간	100만원 이하	211	0.8	4	0.0	(▼0.8)
	100~150만원	6	0.0	54	0.2	(▲0.1)
	150~200만원	661	2.6	1,337	3.9	(▲1.3)
	200~250만원	3,419	13.2	4,931	14.3	(▲1.0)
	250~300만원	5,703	22.1	5,898	17.1	(▼5.0)
	300~350만원	5,147	19.9	5,748	16.7	(▼3.3)
	350~400만원	4,792	18.6	5,654	16.4	(▼2.2)
	400만원 초과	5,881	22.8	10,878	31.5	(▲8.7)
기업 규모	5인 미만	-	-	3,320	9.6	(▲9.6)
	5인~9인	9,258	35.9	7,618	22.1	(▼13.8)
	10인~29인	10,279	39.8	13,774	39.9	(▲0.1)
	30인~99인	4,087	15.8	6,455	18.7	(▲2.9)
	100인~299인	1,504	5.8	2,134	6.2	(▲0.4)
	300인 이상	692	2.7	1,203	3.5	(▲0.8)
근무지	수도권	9,136	35.4	14,059	40.7	(▲5.4)
	지방	16,684	64.6	20,445	59.3	(▼5.4)
전체 (증감률)		25,820 (▲46.7)	100.0	34,504 (▲33.6)	100.0	-

\*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자료 분석(2020 하반기 및 2021 하반기 자료 분석)

건설기술인력 채용공고 증감률



## 2. 기술사·건축사 자격 채용 증가 및 산업기사·기능사 채용 감소

- 전체 모집인원 중 경력직 사원의 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한 20,246명으로 모집인원의 절반 이상(58.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경력직 모집인원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토목감리 기술자(83.9%) → 토목 현장소장(80.2%) → 건축 현장소장(80.2%) 순으로 나타남.
- 전체 모집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직종은 건축시공 기술자(8,778명, 25.4%) → 토목시공 기술자(5,209명, 15.1%) → 건축안전·환경·품질·에너지관리 기술자(5,190명, 15.0%) → 건축가(3,026명, 8.8%)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은 직종은 토목구조 설계 기술자(96.1%) → 측량사(94.3%) → 측량·지리정보 전문가(94.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직 채용 비중이 높은 직종은 도시·교통 전문가(52.8%) → 건축안전·환경·품질·에너지관리 기술자(44.3%) → 건축감리 기술자(36.7%) 순으로 평균 계약직 채용 비중 16.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최소 요구 학력이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는 전체 채용의 4.1% 수준이지만, 도시·교통 전문가(69.4%) → 도시 계획·설계가(55.5%) → 교통 계획·설계·안전·영향평가 전문가(38.0%)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 학력 요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을 요구하는 채용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1.2%, 190.2% 증가하여 전체 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0%p 증가한 3.8%로 나타났으며, 기사 자격을 요구하는 채용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4.1% 증가하여 17,726명으로 전체 비중의 51.4%를 차지함.
- 반면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을 요구하는 채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8%, 12.6% 감소하여 전체 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4.7%p 감소한 8.9%로 나타남.

〈표 8〉 건설기술인력 채용공고 직종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소계	고용형태		학력				경력			자격종					
		정규직	계약직	대졸	전문대졸	고졸	학력무관	경력	신입	경력무관	기술사	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무관
건설자재 시험원	379	345	34	7	29	146	197	85	76	218	-	-	125	16	31	207
건축 현장소장	2,947	2,657	290	34	736	315	1,862	2,363	33	551	107	1	1,885	95	47	812
건축가 (건축설계 포함)	3,026	2,828	198	323	1,158	242	1,303	1,575	225	1,226	18	200	639	86	97	1,986
건축감리 기술자	509	322	187	24	164	53	268	337	28	144	8	30	196	15	14	246
건축공학 기술자	481	429	52	24	198	88	171	228	71	182	42	5	267	35	7	125
건축구조 기술자	327	287	40	38	162	37	90	86	31	210	21	-	217	2	-	87
건축설비 기술자	1,130	969	161	39	242	141	708	669	74	387	14	-	617	96	50	353
건축시공 기술자 (건축건설, 공무포함)	8,778	7,713	1,065	156	2,783	966	4,873	5,416	416	2,946	177	31	4,979	650	207	2,734
건축안전·환경·품질·에너지관리 기술자	5,190	2,893	2,297	54	1,084	478	3,574	2,717	266	2,207	196	-	2,561	558	27	1,848
교통 계획·설계·안전·영향평가 전문가	50	47	3	19	18	3	10	11	8	31	3	-	33	3	-	11
도시 계획·설계가	373	329	44	207	84	14	68	168	28	177	16	-	161	-	1	195
도시·교통 전문가	36	17	19	25	7	0	4	2	5	29	1	-	16	1	-	18
조경 기술자	915	756	159	33	253	87	542	449	33	433	19	-	447	75	102	272
측량·지리정보 전문가	450	424	26	12	24	103	311	100	56	294	5	-	182	40	80	143
측량사	247	233	14	0	17	126	104	53	32	162	-	-	101	24	18	104
토목 현장소장	949	873	76	9	226	118	596	761	27	161	34	-	511	50	8	346
토목감리 기술자	230	185	45	13	72	27	118	193	7	30	58	-	75	5	-	92
토목공학 기술자	1,479	1,355	124	138	579	259	503	553	124	802	46	-	909	50	8	466
토목구조 설계 기술자	719	691	28	140	317	81	181	263	59	397	25	-	338	18	20	318
토목시공 기술자 (토목건설, 공무포함)	5,209	4,753	456	110	1,328	687	3,084	3,598	155	1,456	163	-	2,837	369	33	1,807
토목안전·환경·품질 기술자	1,080	793	287	13	293	133	641	619	56	405	65	-	630	129	1	255
전체 (증감률)	34,504 (▲33.6)	28,899 (▲33.1)	5,605 (▲36.6)	1,418 (▲13.5)	9,774 (▲27.8)	4,104 (▲17.4)	19,208 (▲43.1)	20,246 (▲27.6)	1,810 (▲34.8)	12,448 (▲44.5)	1,018 (▲181.2)	267 (▲190.2)	17,726 (▲74.1)	2,317 (▼12.8)	751 (▼12.6)	12,425 (▲6.5)

\*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직종 분류는 고용노동부의 분류체계에 준함.

\*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자료(2022.6.30. 기준)

### 3. 급여조건 월 평균 357.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만원 증가

- 월급구간 채용공고 비중은 400만원 초과(31.5%) → 250~300만원(17.1%) → 300~350만원(16.7%) → 350~400만원(16.4%) → 200~250만원(14.3%) 순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월급 100만원 이하 및 100~150만원 구간의 채용공고 비중은 0.2%(58명)로 크게 낮아졌으며, 월급 400만원 이상 구간의 채용이 전년 동기 대비 85.0% 증가하여 상승폭이 가장 높음.

〈표 9〉 건설기술인력 채용공고 급여현황

(단위: 명, %)

구분		'20년 하반기		'21년 하반기		증감률	구분		'20년 하반기		'21년 하반기		증감률
		소계	비중	소계	비중				소계	비중	소계	비중	
월급 구간	100만원 이하	211	0.8	4	0.0	(▼98.1)	250~300만원	5,703	22.1	5,898	17.1	(▲3.4)	
	100~150만원	6	0.0	54	0.2	(▲800.0)	300~350만원	5,147	19.9	5,748	16.7	(▲11.7)	
	150~200만원	661	2.6	1337	3.9	(▲102.3)	350~400만원	4,792	18.6	5,654	16.4	(▲18.0)	
	200~250 만원	3,419	13.2	4,931	14.3	(▲44.2)	400만원 초과	5,881	22.8	10,878	31.5	(▲85.0)	

\*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자료(2022.6.30. 기준)

- 건설기술인 채용공고의 전체 월 평균급여는 357.8만원으로 정규직과 계약직 간 차이는 약 2.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지방 지역의 차이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 구분에 따른 월 평균급여의 경우 학력무관(361.7만원) → 전문대학(358.0만원) → 고등학교 이하(349.2만원) → 4년제 대학 이상(326.4만원) 순으로 나타나 학력 수준에 따른 급여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자격 구분에 따른 월 평균급여의 경우 기술사(384.3만원) → 기사(374.6만원) → 산업기사(362.4만원) → 건축사(360.3만원) → 자격무관(336.0만원) → 기능사(280.5만원) 순이었으나, 월급 400만원 초과 고연봉을 제시하는 채용공고 중 6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자격은 기사 자격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에 따른 월 평균급여가 가장 높은 구간은 30인~99인 규모 기업(378.0만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구간은 5인 미만 규모 기업(309.1만원)으로 나타남.

〈표 10〉 건설기술인력 채용공고 고용형태별 급여현황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급여	경력			학력				자격					기업 규모						근무지		
		경력	신입	경력 무관	대졸 이상	전문 대졸	고졸 이하	학력 무관	기술사	건축사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자격 무관	5인 미만	5인~ 9인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이상	수도권	지방
계약직	355.6	381.6	273.2	320.1	336.8	376.8	355.9	347.7	384.5	376.1	382.4	373.4	277.1	324.9	320.2	364.2	379.1	363.1	317.8	353.9	359.5	352.8
정규직	358.2	389.4	267.8	312.5	325.0	354.5	347.7	364.9	384.3	356.8	373.2	359.9	280.8	338.9	307.5	348.2	370.7	380.3	357.6	330.3	358.7	357.9
평균급여	357.8	388.1	268.5	313.9	326.4	358.0	349.2	361.7	384.3	360.3	374.6	362.4	280.5	336.0	309.1	349.8	371.9	378.0	332.6	349.1	358.9	357.1

\*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자료(2022.6.30. 기준)

- 건축 및 토목 현장소장 직종의 월평균 급여는 각각 421.4만원, 414.5만원으로 전체 직종의 월평균 급여보다 6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량·지리 정보전문가 직종의 월평균 급여는 256.2만원으로 가장 낮은 월평균 급여 수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 건설기술인력 채용공고 직종별 급여현황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급여	건설 자재 시험원	건축 현장 소장	건축가 (건축 설계 포함)	건축 감리 기술자	건축 공학 기술자	건축 구조 기술자	건축 설비 기술자	건축 시공 기술자 (건축 건적, 공무 포함)	건축 안전· 환경· 품질· 에너지 관리 기술자	교통 계획· 설계· 안전· 영향 평가 전문가	도시 계획· 설계가	도시· 교통 전문가	조경 기술자	측량· 지리 정보 전문가	측량사	토목 현장 소장	토목 감리 기술자	토목 공학 기술자	토목 구조 설계 기술자	토목 시공 기술자 (토목 건적, 공무 포함)	토목 안전· 환경· 품질 기술자
평균 급여	357.8	288.5	421.4	289.6	340.9	334.3	285.1	309.6	362.3	362.7	290.0	303.1	267.7	293.6	256.2	274.9	414.5	387.7	328.1	299.2	390.3	382.9

\*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자료 분석(2021 하반기 자료 분석)

# 07 [특집] 건설기술인 근로실태조사

## 1. 건설기술인 근로실태조사 목적 및 조사설계

- 건설기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설기술인의 근무조건과 복리후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약 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Google Forms)를 실시하였으며, 총 응답자 4,133명 중 이상치를 제외한 4,12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본 설문조사에서 시행한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급, 고용형태, 종사경력, 기술인등급, 보유자격,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과 소속업체의 업종 및 종사자 수, 주로 수행하는 사업(공사) 형태와 더불어 직장에서 제공되는 부가급여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음.

## 2. 건설기술인 근로실태조사 결과

〈표 12〉 건설기술인 근로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4,124	(100.0)				
성별	남성	3,777	(91.6)	기술인등급	초급	704	(17.1)
	여성	347	(8.4)		중급	530	(12.9)
연령	20대	132	(3.2)		고급	710	(17.2)
	30대	416	(10.1)		특급	2,150	(52.1)
	40대	1,277	(31.0)		무등급	30	(0.7)
	50대	1,476	(35.8)	보유자격	자격증 없음	532	(12.9)
	60대	780	(18.9)		인정기능사	80	(1.9)
학력	70대 이상	43	(1.0)		기능사	587	(14.2)
	고졸 이하	305	(7.4)		기사	2,436	(59.1)
	전문대 졸업	982	(23.8)		기술사	489	(11.9)
	대학(4년제) 졸업	2,163	(52.4)	업종	종합건설업	1,683	(40.8)
	석사 졸업	559	(13.6)		전문건설업	771	(18.7)
직급	박사 졸업	115	(2.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680	(16.5)
	사원급	146	(3.5)		건설사업관리	751	(18.2)
	대리급	187	(4.5)		발주기관	94	(2.3)
	과장급	387	(9.4)		기타	145	(3.5)
	차장급	546	(13.2)	업무	원도급 공사 또는 설계	1,728	(41.9)
근무장소	부장급	1,296	(31.4)		하도급 공사 또는 설계	694	(16.8)
	임원급	1,437	(34.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552	(13.4)
	대표(자)	125	(3.0)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	857	(20.8)
	현장	1,954	(47.4)		발주자(기관)으로서 감독	107	(2.6)
고용형태	사무실	1,558	(37.8)		기타	186	(4.5)
	현장 및 사무실 동시근무	612	(14.8)	종사자수	1~4인	445	(10.8)
	정규직	3,272	(79.3)		5~9인	747	(18.1)
	무기계약직	523	(12.7)		10~29인	912	(22.1)
	임시직	329	(8.0)		30~49인	304	(7.4)
종사경력	10년 이하	854	(20.7)		50~99인	356	(8.6)
	20년 이하	935	(22.7)		100~299인	462	(11.2)
	30년 이하	1,684	(40.8)		300~499인	245	(5.9)
	30년 초과	651	(15.8)		500~999인	251	(6.1)
					1000명 이상	402	(9.7)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신고된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자료 분석(2021.12.31. 자료출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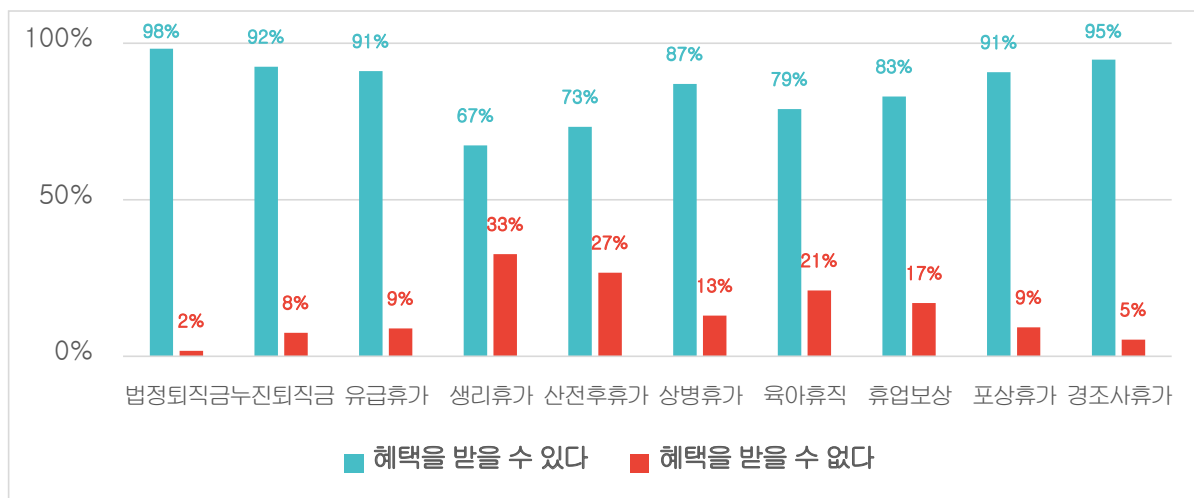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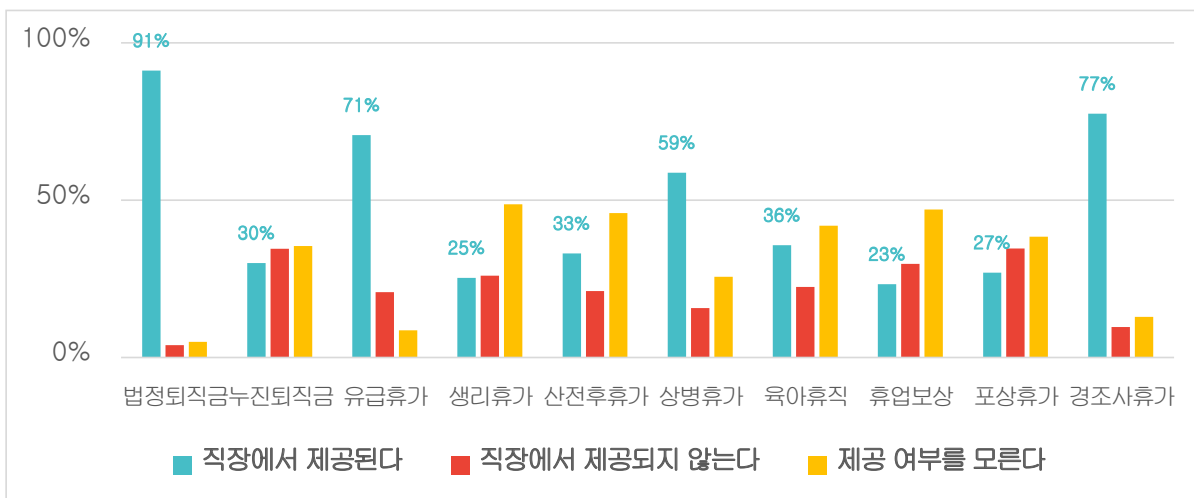
- 응답자 성별은 남성 91.6%, 여성 8.4%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66.8%가 40~50대이며 직급 또한 부장급 이상인 경우가 69.3%로 나타남.
- 응답자 고용형태는 정규직 79.3% 무기계약직 12.7%, 임시직 8.0%로 나타났으며, 특급 건설기술인의 응답 비율이 52.1%로 가장 높았음.
- 응답자의 업종은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이 59.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가 50인 이하로 비교적 소규모인 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7.6%로 약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남.

〈표 13〉 휴가 관련 복리후생 제공 여부(1)

(단위: 명)

구분	법정퇴직금	누진퇴직금	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상병휴가	육아휴직	휴업보상	포상휴가	경조사휴가
제공	3,760	1,239	2,916	1,044	1,362	2,420	1,472	959	1,112	3,195
수혜	3,695	1,146	2,658	703	998	2,106	1,163	796	1,009	3,027
비수혜	65	93	258	341	364	314	309	163	103	168
제공하지 않음	160	1,426	854	1,073	869	646	924	1,225	1,428	397
제공여부 모름	204	1,459	354	2,007	1,893	1,058	1,728	1,940	1,584	532

〈그림 6〉 휴가 관련 복리후생 제공 여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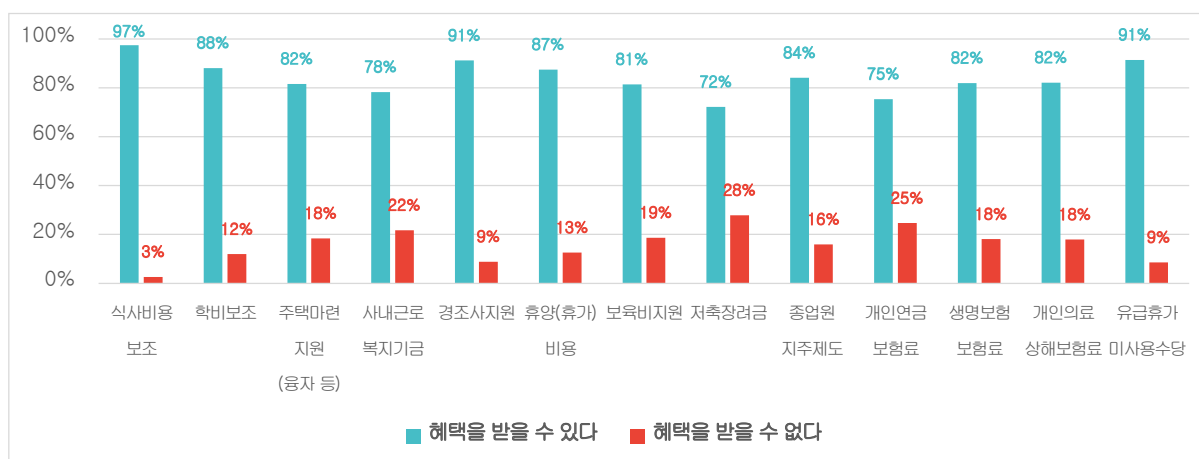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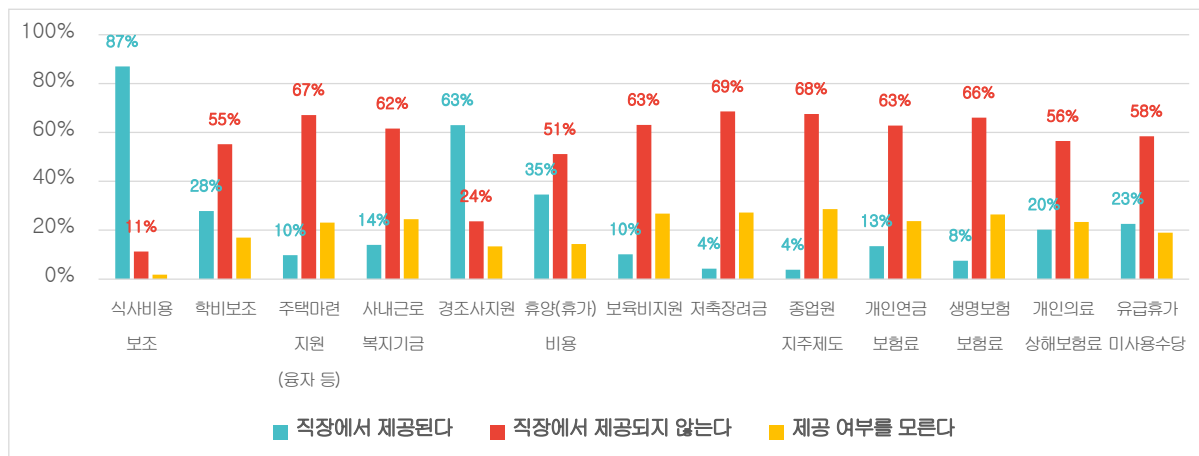
-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항목 중 법정퇴직금, 유급휴가, 경조사휴가, 상병휴가는 직장에서 제공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50% 이상이지만, 누진퇴직금,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휴업보상, 포상휴가는 직장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직장에서 현재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비중이 생리휴가(33%) → 산전후휴가(27%) → 육아휴직(21%) → 휴업보상(17%) → 상병휴가(13%) 순으로 나타남.
-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이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 여부를 모르는 경우는 대다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기술인으로 보이며, 기업에서 해당 제공하고 있으나 활용 여건(시간적 제약, 분위기 등)이 마련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4〉 비용 관련 복리후생 제공 여부(1)

(단위: 명)

구분		식사비용 보조	학비보조	주택마련 지원 (융자 등)	사내근로 복지기금 지원	경조사 지원	휴양(휴가) 비용지원	보육비 지원	저축 장려금 지원	종업원 지주 제도지원	개인연금 보험료 지원	생명보험 보험료 지원	개인의료· 상해보험료 지원
제공	소계	3,587	1,148	402	575	2,597	1,426	419	176	157	556	310	833
	수혜	3,494	1,011	328	450	2,368	1,247	341	127	132	419	254	684
	비수혜	93	137	74	125	229	179	78	49	25	137	56	149
제공하지 않음		463	2,275	2,768	2,539	974	2,108	2,601	2,827	2,785	2,591	2,723	2,329
제공여부 모름		74	701	954	1,010	553	590	1,104	1,121	1,182	977	1,091	962

〈그림 6〉 휴가 관련 복리후생 제공 여부(2)





- 마찬가지로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항목 중 식사비용보조 및 경조사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직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저축장려금, 종업원주주제도, 보험료 지원 등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직장에서 현재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비중은 저축장려금(28%) → 개인연금보험료(25%) → 사내근로복지기금(22%) → 교육비지원(19%) 순으로 나타남.
- 종합하면 건설기술인에게 직장에서 제공하는 비율이 70% 이상인 항목은 법정퇴직금, 유급휴가, 경조사휴가, 식사비용보조 뿐이며, 이를 제외한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항목의 제공이 부족한 실정임.

〈표 15〉 건설기술인 연령별 조직몰입도

(단위: 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일자리)은 다닐만한 좋은 직장이다	아주 그렇다	17	(12.9)	37	(8.9)	99	(7.8)	155	(10.5)	113	(14.5)	10	(23.3)
	그런 편이다	40	(30.3)	128	(30.8)	420	(32.9)	537	(36.4)	290	(37.2)	9	(20.9)
	보통이다	42	(31.8)	152	(36.5)	529	(41.4)	558	(37.8)	293	(37.6)	22	(51.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	(14.4)	63	(15.1)	158	(12.4)	156	(10.6)	55	(7.1)	1	(2.3)
	전혀 그렇지 않다	14	(10.6)	36	(8.7)	71	(5.6)	70	(4.7)	29	(3.7)	1	(2.3)
나는 이 직장(일자리)에 들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주 그렇다	17	(12.9)	41	(9.9)	109	(8.5)	173	(11.7)	128	(16.4)	10	(23.3)
	그런 편이다	36	(27.3)	103	(24.8)	360	(28.2)	482	(32.7)	280	(35.9)	13	(30.2)
	보통이다	47	(35.6)	172	(41.3)	526	(41.2)	574	(38.9)	280	(35.9)	16	(37.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8	(13.6)	54	(13.0)	197	(15.4)	170	(11.5)	56	(7.2)	3	(7.0)
	전혀 그렇지 않다	14	(10.6)	46	(11.1)	85	(6.7)	77	(5.2)	36	(4.6)	1	(2.3)
직장(일자리)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아주 그렇다	11	(8.3)	27	(6.5)	87	(6.8)	125	(8.5)	85	(10.9)	7	(16.3)
	그런 편이다	36	(27.3)	81	(19.5)	283	(22.2)	397	(26.9)	269	(34.5)	9	(20.9)
	보통이다	40	(30.3)	135	(32.5)	412	(32.3)	488	(33.1)	248	(31.8)	21	(48.8)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	(14.4)	80	(19.2)	276	(21.6)	287	(19.4)	122	(15.6)	4	(9.3)
	전혀 그렇지 않다	26	(19.7)	93	(22.4)	219	(17.1)	179	(12.1)	56	(7.2)	2	(4.7)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일자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아주 그렇다	16	(12.1)	38	(9.1)	92	(7.2)	137	(9.3)	102	(13.1)	9	(20.9)
	그런 편이다	30	(22.7)	87	(20.9)	260	(20.4)	370	(25.1)	227	(29.1)	7	(16.3)
	보통이다	45	(34.1)	142	(34.1)	487	(38.1)	547	(37.1)	307	(39.4)	20	(46.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	(15.2)	79	(19.0)	253	(19.8)	262	(17.8)	99	(12.7)	6	(14.0)
	전혀 그렇지 않다	21	(15.9)	70	(16.8)	185	(14.5)	160	(10.8)	45	(5.8)	1	(2.3)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다	아주 그렇다	16	(12.1)	46	(11.1)	125	(9.8)	200	(13.6)	142	(18.2)	11	(25.6)
	그런 편이다	23	(17.4)	105	(25.2)	371	(29.1)	516	(35.0)	294	(37.7)	11	(25.6)
	보통이다	44	(33.3)	129	(31.0)	424	(33.2)	442	(29.9)	228	(29.2)	17	(39.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7	(20.5)	75	(18.0)	211	(16.5)	211	(14.3)	73	(9.4)	2	(4.7)
	전혀 그렇지 않다	22	(16.7)	61	(14.7)	146	(11.4)	107	(7.2)	43	(5.5)	2	(4.7)

- 현 직장에 대한 조직몰입도(organizational commitment)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자료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응답항목은 ‘아주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 조직몰입도와 관련된 문항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적 응답(아주 그렇다, 그런 편이다)이 39.7%~51.7%로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7~25.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30~40대에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낮았음.
- 조직몰입도와 관련된 문항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에서 긍정적 응답(아주 그렇다, 그런 편이다)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다’ 문항의 경우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긍정적 응답의 비율보다 7.7%p 높게 나타남.

- 또한 30·40대의 경우 ‘직장(일자리)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일자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문항에서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각각 35.8~41.6%, 34.3~38.7%로 높게 나타남.
- 50대 이상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 20~40대의 조직몰입도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현재 젊고 유능한 건설기술인의 이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건설기술인의 수급 불균형 현상과 고령화를 대비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결과임.

〈표 16〉 건설기술인 연령별 조직몰입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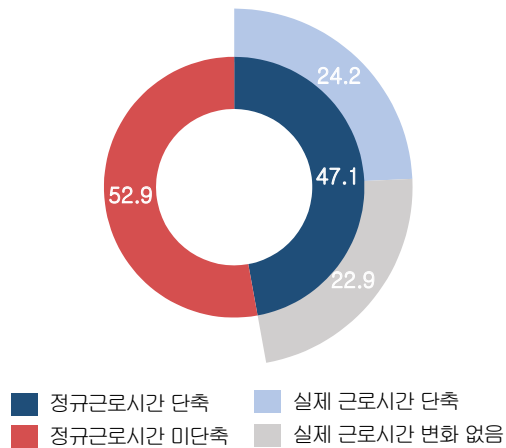
구분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무등급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일자리)은 다닐만한 좋은 직장이다	아주 그렇다	74	(10.5)	51	(9.6)	63	(8.9)	237	(11.0)	6	(20.0)
	그런 편이다	223	(31.7)	169	(31.9)	216	(30.4)	801	(37.3)	15	(50.0)
	보통이다	274	(38.9)	195	(36.8)	285	(40.1)	836	(38.9)	6	(20.0)
	그렇지 않은 편이다	78	(11.1)	82	(15.5)	99	(13.9)	191	(8.9)	2	(6.7)
	전혀 그렇지 않다	55	(7.8)	33	(6.2)	47	(6.6)	85	(4.0)	1	(3.3)
나는 이 직장(일자리)에 들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주 그렇다	83	(11.8)	50	(9.4)	72	(10.1)	267	(12.4)	6	(20.0)
	그런 편이다	200	(28.4)	149	(28.1)	183	(25.8)	732	(34.0)	10	(33.3)
	보통이다	279	(39.6)	207	(39.1)	302	(42.5)	817	(38.0)	10	(3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83	(11.8)	82	(15.5)	101	(14.2)	231	(10.7)	1	(3.3)
	전혀 그렇지 않다	59	(8.4)	42	(7.9)	52	(7.3)	103	(4.8)	3	(10.0)
직장(일자리)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아주 그렇다	62	(8.8)	38	(7.2)	48	(6.8)	189	(8.8)	5	(16.7)
	그런 편이다	147	(20.9)	110	(20.8)	163	(23.0)	646	(30.0)	9	(30.0)
	보통이다	232	(33.0)	173	(32.6)	218	(30.7)	713	(33.2)	8	(26.7)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4	(19.0)	120	(22.6)	157	(22.1)	373	(17.3)	4	(13.3)
	전혀 그렇지 않다	129	(18.3)	89	(16.8)	124	(17.5)	229	(10.7)	4	(13.3)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일자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아주 그렇다	78	(11.1)	51	(9.6)	52	(7.3)	208	(9.7)	5	(16.7)
	그런 편이다	154	(21.9)	102	(19.2)	146	(20.6)	568	(26.4)	11	(36.7)
	보통이다	274	(38.9)	196	(37.0)	247	(34.8)	824	(38.3)	7	(2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3	(14.6)	105	(19.8)	156	(22.0)	351	(16.3)	4	(13.3)
	전혀 그렇지 않다	95	(13.5)	76	(14.3)	109	(15.4)	199	(9.3)	3	(10.0)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다	아주 그렇다	90	(12.8)	67	(12.6)	75	(10.6)	301	(14.0)	7	(23.3)
	그런 편이다	200	(28.4)	144	(27.2)	199	(28.0)	763	(35.5)	14	(46.7)
	보통이다	235	(33.4)	170	(32.1)	238	(33.5)	637	(29.6)	4	(1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99	(14.1)	92	(17.4)	112	(15.8)	294	(13.7)	2	(6.7)
	전혀 그렇지 않다	80	(11.4)	57	(10.8)	86	(12.1)	155	(7.2)	3	(10.0)

- 조직몰입도와 관련된 문항을 기술인 등급별로 살펴보면, 초급 기술인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에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직장(일자리)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문항의 경우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7.6%p 높게 나타남.
- 중·고급 기술인의 경우 ‘직장(일자리)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일자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문항에서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각각 34.2~39.4%, 37.3~39.6%로 높게 나타남.
- 특급 기술인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직장(일자리)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일자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문항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25.6~28.0%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8〉 건설기술인 정규 근로시간 단축 여부

(단위: %)



- 건설기술인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주당 정규 근로시간 단축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1%가 근무업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 중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된 응답자는 51.5%로 전체 응답자 중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17〉 건설기술인 연령별 정규 근로시간 단축 영향

(단위: 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근로소득	대폭 늘어났다	0	(0.0)	2	(1.4)	6	(1.1)	3	(0.4)	0	(0.0)	0	(0.0)
	약간 늘어났다	4	(7.8)	12	(8.3)	40	(7.0)	36	(4.9)	12	(2.9)	1	(3.8)
	별 차이 없다	43	(84.3)	110	(75.9)	469	(82.1)	586	(79.2)	335	(81.7)	24	(92.3)
	약간 줄어 들었다	4	(7.8)	15	(10.3)	44	(7.7)	95	(12.8)	50	(12.2)	1	(3.8)
	대폭 줄어 들었다	0	(0.0)	6	(4.1)	12	(2.1)	20	(2.7)	13	(3.2)	0	(0.0)
휴가일수	대폭 늘어났다	0	(0.0)	5	(3.4)	13	(2.3)	25	(3.4)	5	(1.2)	0	(0.0)
	약간 늘어났다	4	(7.8)	13	(9.0)	96	(16.8)	105	(14.2)	35	(8.5)	1	(3.8)
	별 차이 없다	44	(86.3)	122	(84.1)	432	(75.7)	571	(77.2)	336	(82.0)	25	(96.2)
	약간 줄어 들었다	3	(5.9)	3	(2.1)	22	(3.9)	30	(4.1)	29	(7.1)	0	(0.0)
	대폭 줄어 들었다	0	(0.0)	2	(1.4)	8	(1.4)	9	(1.2)	5	(1.2)	0	(0.0)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대폭 늘어났다	0	(0.0)	4	(2.8)	7	(1.2)	11	(1.5)	1	(0.2)	0	(0.0)
	약간 늘어났다	2	(3.9)	9	(6.2)	44	(7.7)	46	(6.2)	16	(3.9)	0	(0.0)
	별 차이 없다	43	(84.3)	97	(66.9)	363	(63.6)	526	(71.1)	336	(82.0)	24	(92.3)
	약간 줄어 들었다	5	(9.8)	25	(17.2)	109	(19.1)	117	(15.8)	40	(9.8)	2	(7.7)
	대폭 줄어 들었다	1	(2.0)	10	(6.9)	48	(8.4)	40	(5.4)	17	(4.1)	0	(0.0)
신규 고용자수	대폭 늘어났다	1	(2.0)	5	(3.4)	12	(2.1)	9	(1.2)	4	(1.0)	0	(0.0)
	약간 늘어났다	6	(11.8)	15	(10.3)	95	(16.6)	103	(13.9)	53	(12.9)	1	(3.8)
	별 차이 없다	41	(80.4)	109	(75.2)	421	(73.7)	565	(76.4)	323	(78.8)	23	(88.5)
	약간 줄어 들었다	3	(5.9)	9	(6.2)	32	(5.6)	49	(6.6)	23	(5.6)	2	(7.7)
	대폭 줄어 들었다	0	(0.0)	7	(4.8)	11	(1.9)	14	(1.9)	7	(1.7)	0	(0.0)
노동강도	대폭 늘어났다	5	(9.8)	12	(8.3)	34	(6.0)	26	(3.5)	4	(1.0)	0	(0.0)
	약간 늘어났다	7	(13.7)	34	(23.4)	139	(24.3)	197	(26.6)	62	(15.1)	2	(7.7)
	별 차이 없다	36	(70.6)	94	(64.8)	362	(63.4)	488	(65.9)	339	(82.7)	23	(88.5)
	약간 줄어 들었다	3	(5.9)	4	(2.8)	28	(4.9)	22	(3.0)	4	(1.0)	1	(3.8)
	대폭 줄어 들었다	0	(0.0)	1	(0.7)	8	(1.4)	7	(0.9)	1	(0.2)	0	(0.0)

- 근로시간 단축 영향과 관련된 문항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정규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3.4%~96.2%로 실제 근무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30~50대의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13.5~18.6%p 높게 나타났으며, 휴가일수 또한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9.0~13.8%p 높게 나타남.
- 반면 노동강도의 경우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높았으며, 특히 30~50대의 경우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30.1~31.7%로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인 3.4~6.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또한 50~60대의 경우 근로소득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10.3~12.4%p 높게 나타남.

〈표 18〉 건설기술인 등급별 정규 근로시간 단축 영향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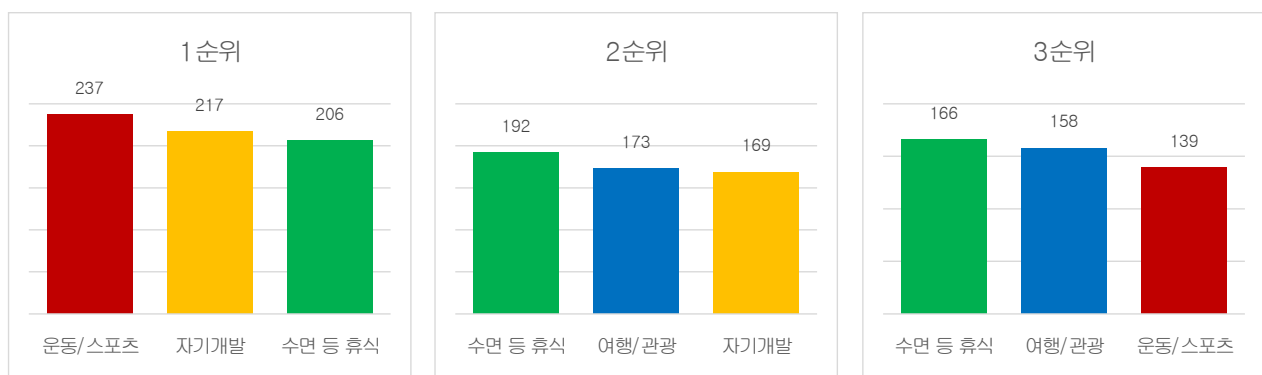
구분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무등급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근로소득	대폭 늘어났다	4	(1.3)	2	(1.0)	0	(0.0)	5	(0.4)	0	(0.0)
	약간 늘어났다	20	(6.7)	18	(8.6)	21	(7.3)	45	(4.0)	1	(5.6)
	별 차이 없다	225	(75.3)	160	(76.6)	234	(81.5)	933	(82.6)	15	(83.3)
	약간 줄어들었다	40	(13.4)	21	(10.0)	24	(8.4)	122	(10.8)	2	(11.1)
	대폭 줄어들었다	10	(3.3)	8	(3.8)	8	(2.8)	25	(2.2)	0	(0.0)
휴가일수	대폭 늘어났다	5	(1.7)	5	(2.4)	8	(2.8)	29	(2.6)	1	(5.6)
	약간 늘어났다	32	(10.7)	27	(12.9)	45	(15.7)	147	(13.0)	3	(16.7)
	별 차이 없다	243	(81.3)	163	(78.0)	217	(75.6)	894	(79.1)	13	(72.2)
	약간 줄어들었다	16	(5.4)	7	(3.3)	13	(4.5)	50	(4.4)	1	(5.6)
	대폭 줄어들었다	3	(1.0)	7	(3.3)	4	(1.4)	10	(0.9)	0	(0.0)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대폭 늘어났다	2	(0.7)	2	(1.0)	7	(2.4)	12	(1.1)	0	(0.0)
	약간 늘어났다	22	(7.4)	11	(5.3)	12	(4.2)	71	(6.3)	1	(5.6)
	별 차이 없다	233	(77.9)	144	(68.9)	207	(72.1)	790	(69.9)	15	(83.3)
	약간 줄어들었다	25	(8.4)	36	(17.2)	43	(15.0)	192	(17.0)	2	(11.1)
	대폭 줄어들었다	17	(5.7)	16	(7.7)	18	(6.3)	65	(5.8)	0	(0.0)
신규 고용자수	대폭 늘어났다	5	(1.7)	4	(1.9)	6	(2.1)	16	(1.4)	0	(0.0)
	약간 늘어났다	28	(9.4)	28	(13.4)	48	(16.7)	168	(14.9)	1	(5.6)
	별 차이 없다	241	(80.6)	156	(74.6)	209	(72.8)	862	(76.3)	14	(77.8)
	약간 줄어들었다	20	(6.7)	11	(5.3)	18	(6.3)	66	(5.8)	3	(16.7)
	대폭 줄어들었다	5	(1.7)	10	(4.8)	6	(2.1)	18	(1.6)	0	(0.0)
노동강도	대폭 늘어났다	13	(4.3)	7	(3.3)	18	(6.3)	42	(3.7)	1	(5.6)
	약간 늘어났다	52	(17.4)	35	(16.7)	72	(25.1)	280	(24.8)	2	(11.1)
	별 차이 없다	222	(74.2)	154	(73.7)	187	(65.2)	765	(67.7)	14	(77.8)
	약간 줄어들었다	9	(3.0)	10	(4.8)	7	(2.4)	35	(3.1)	1	(5.6)
	대폭 줄어들었다	3	(1.0)	3	(1.4)	3	(1.0)	8	(0.7)	0	(0.0)

- 근로시간 단축 영향과 관련된 문항을 기술인 등급별로 살펴보면, 연령과 마찬가지로 정규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5.2%~8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는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휴가일수는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그러나 노동강도의 경우 모든 등급에서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 간 격차는 고급(27.9%p) → 특급(24.7%p) → 초급(17.7%p) → 중급(13.9%p) → 무등급(11.1%p) 순으로 나타남.

- 이를 종합하면 주 52시간제 근무제 도입에 따라 주당 정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결과 건설기술인들은 근로소득,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는 줄어들고 휴가일수와 신규 고용은 늘어났으나 그 정도가 미약하며, 노동강도는 그에 비해 높아졌다고 느끼고 있음.
- 이는 현재 산업의 주력 연령대층인 30~50대에서 더 크게 체감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제도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임.
- 과거부터 공기지연, 돌발상황, 과다 업무량 등의 산업적인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는 일부 본사를 제외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며, 초과근무가 다수 발생함과 동시에 기술인 이탈현상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어 노동강도가 높은 것이 현실임.
-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인들의 근로시간, 휴일, 적정 대가 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기술인들의 일-가정 양립과 부정적 인식은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건설기술인의 근무환경(복리후생, 근로시간, 휴일, 대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

〈그림 9〉 근로시간 단축 이전과 비교하여 사용시간이 늘어난 활동(1)

(단위: 명)



〈표 19〉 근로시간 단축 이전과 비교하여 사용시간이 늘어난 활동(2)

(단위: 명)

구분	추가적인 소득활동	가사일	자기개발	수면 등 휴식	TV 시청	여행/관광	운동/스포츠	오락/게임	사교/모임활동	사회활동/봉사활동	종교활동	기타
1순위	40	105	217	206	25	117	237	7	38	6	9	92
2순위	30	106	169	192	63	173	164	20	66	15	10	91
3순위	38	92	137	166	86	158	139	24	90	19	23	127

-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응답한 인원을 대상으로 단축 이전과 비교하여 사용시간이 늘어난 활동을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조사된 항목은 운동/스포츠(237명) → 자기개발(217명) → 수면 등 휴식(20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수면 등 휴식(192명) → 여행/관광(173명) → 자기개발(169명), 3순위는 수면 등 휴식(166명) → 여행/관광(158명) → 운동/스포츠(139명) 순으로 나타남.

〈주의사항〉

본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이 수행한 자체 연구성과로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 동향 브리핑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처: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650, 8층(논현동, 건설기술인회관)

대표전화: 02-6204-4332

홈페이지: <http://www.cepik.re.kr/>

